

오순절 후 세번째/아버지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6월 18일 오전 10시

인도: 정재홍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통일 5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 번 (시편 2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John) 146-13	임소영집사
찬 양 Anthem	“그 사랑 크고도 놀랍네”	찬양대
설 교 Sermon	“ 아버지 ” (Father)	정재홍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12 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통일 34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홍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과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늘 말씀에 감격했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이 즐거웠으며, 온통 주님 생각에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감사도, 감격도 없이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책임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도 있었으며,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 24, 시 51:10,1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개역개정 요 14:11)

“Believe me when I say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NIV John 14: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18 (주일)	6/19 (월)	6/20 (화)	6/21 (수)	6/22 (목)	6/23 (금)	6/24 (토)
	신23	신24	신25	신26	신27,28:1-19	신28:20-68	신29
본문	시112,113	시114,115	시116	시117,118	시119:1-24	시119:25-48	시119:49-72
	사50	사51	사52	사53	사54	사55	사56
	계20	계21	계22	마1	마2	마3	마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21수 오후7:30)	룻기 (4) – “우연일까? 필연일까?” (룻21-7)
토요 새벽기도회 (6/24토 오전6:30)	데살로니가전서 (4) – “삶의 이유”(살전2:13-20)

지난 주일(6/11) 말씀

“꼭 찾아야 할 주님”(누가복음 2:41-51)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12 세 된 소년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면서, 으레히 소년 예수는 동행중에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를 잃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는?

1. 무관심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하루가 지나도록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경의 의문점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질문도 하게 되고, 계속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없고 해답도 없습니다.

2 자기 의무와 책임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육적인 부모로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2세 소년을 3일을 가야하는 여행길에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모두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실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3.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친족들과 어울려 다른 일에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가 함께 있는지 아닌지 생각하지 못하고 가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일에 분주하다보면 주님과 가져야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게 되고, 결국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① 잃어버렸던 곳으로 가야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온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처음 주님을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②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에 계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③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할 때 다시 활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설/교/ 메/모